

해남 대흥사·순천 선암사 세계유산 지정

2018 문화계 결산

〈4〉 문화재·문화재단

문화재

올해는 해남 대흥사, 순천의 선암사 등 한국의 산사 7곳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뜻 깊은 해였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은 대흥사와 선암사 외에도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등 모두 7개 사찰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3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라시대 창건된 해남 대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로, 서산대사 유물이 남아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했던 남다른 인연을 지닌 곳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40돌

구례 가야계 토기 무덤 확인 유네스코 유산 된 남북 씨름 운동주 친필원고 150여편 김치담그기 등 문화재 등재

(12월 6일)을 맞았다. 지난 1978년 개관한 광주박물관은 해방 이후 우리 손으로 건립한 최초 국립박물관이다. 지난 40년 동안 발굴조사 100회, 특별전시 130여 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을 토대로 전시회를 열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특별전 '全羅千年-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이 내년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흑산도·제주도 해역에서는 800년 전 중국 도자기 등 유물 550점이 발굴돼 이목을 끌었다. 도자기는 남송시대로 추정되며 발굴 지역은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항로 중 하나인 것으로



신안 흑산도 해역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

알려졌다. 당초 도자기가 발굴된 해역은 1996년~1998년 세 차례에 걸쳐 수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구례 섬진강변에서는 가야계 토기를 묻은 무덤이 확인됐다.

마한문화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례 용두리 고분' 유적에서 가야계 토광묘 3기와 가야계 토기, 청동기 시대 집자리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섬진강과 가까운 용두마을 낮은 구릉에 자리하며 '배들재'라는 지명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꿈꾸며 '한 점 부끄

러움' 없는 시를 쓰다 했던 운동주 시인의 친필원고가 문화재가 됐다. '운동주 친필원고'는 유일한 친필원고로 개작을 포함해 시 144편과 산문 4편이 담겼다.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인 '씨름'이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재가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통해 남북이 함께 등재된 것은 첫 사례다. 특히 무형유산위원회가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족의 대표음식 문화인 김치 담그기가 무형문화재가 된 점도 눈에 띈다. 김치 담그기는 역사적으로 한국문화의 중요한 요소였다.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투영돼 있을 뿐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승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역에서 계승되는 생활문화임을 고려해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암전통문화대상 주소연 명창 '소릿길 40주년'

29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모곡사부곡을 주 명창의 깊은 목소리로 듣는다.

'스페인 음악과 속대머리'를 통해서 스페인 무곡과 판소

"큰 상을 받으면서 그동안 국악 애호가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늦게나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서암전통문화대상을 받은 주소연(51·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장·사진) 명창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송정동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주소연의 소릿길 40주년 콘서트'를 연다.

'소리여 소리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주 명창의 소리 인생 40주년과 지난 7월 '8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됐다. 고수 박시양과 임영일, 프로젝트 앙상블 려, 나빌레라 국악예술단과 주 명창의 제자 30여 명 등이 날 무대에 오르는 출연진은 50명을 넘는다.

순천에서 11살 때 판소리에 입문한 주 명창은 남해성·한애순·김영옥·조상현 등 명창들에게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등을 사사했다. 국가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활동하는 그는 12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향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주 명창의 노력은 지난 2003년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를 설립하면서 빛을 받았다.

40년 관록의 국악인답게 주 명창은 소리 인생을 한 데 모든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가요 '불효자는 읍니다' 노랫말을 빌린 '추월만정'이 눈길을 끈다. 여림적 새벽같이 함께 산으로 다니면서 어습을 도왔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한 사

리의 의외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주 명창은 첼리스트 이대로의 목직현주에 맞춰 새로운 느낌의 '속대머리'를 선보인다.

'성금련류 가야금산조를 위한 합주'로 시작한 무대는 '흥타령', '심방곡'으로 이어진 뒤 '호남가'와 '춘향가' 중 '사랑가'를 가야금 병창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주 명창은 평소 즐겨 부르는 '심청가' 중 '심방사 눈 뜨는 대목'으로 마지막 곡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잔칫날에 잔치음악이 빠질 수 없다. 출연진들이 '성주풀이'와 '진도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주 명창은 스스로에게 과제를 남겼다. 그는 "광주시민으로서 늘 5·18을 다룬 시

대극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왔다"며 "후대가 오랫동안 광주의 오월을 기억할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4606-135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임 행진곡' 세계화 추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전국 문화재단 최초 교육기부 선정 '제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아트 체험교육'은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일선학교 201개소 1만 1078명이 참여했다.

또한 광주시 14개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평가는 2년 연속,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해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민중화의 상징인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한 4개의 창작관련악곡을 제작해 국내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 재생과 문화사업 확산을 위해 광주문화기공회의회를 14곳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광주과학관이 협의회에 참여해 공동 협력 사업에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다. 염지혜 작 '미래열병'. <광주문화재단 제공>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2관 등에서 열렸던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8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국내외 작가 7개국

8개 도시 61명이 참가해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을 주제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다.

행사 기간이 늘고 신작이 많아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했으며 광주만의 행사 아닌 의연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과학기술과 철학의 융합이 다소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난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끝>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플루트로 만나는 실내악 향연

광주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2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플루트의 경쾌한 음색으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13번째 광주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실내악의 밤'이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동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향 수석단원을 지낸 이현경(사진) 단장이 이끄는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은 2008년 창단된 뒤 매년 정기연주회와 해외 초청공연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 프랑스, 독일 작곡가들의 광주 초연곡을 선보인다. 먼저 8명의 플루티스트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연주하며 문을 연다. 이어 사모시 야기사와의 '콜로라투라 플루트 콰르텟', 주냥의 '두 대의 피콜로를 위한 플라타링 버즈'로 무대를 꾸민



다. 베버의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연주는 플루트 최효석과 첼리스트 황다솔, 피아니스트 이유정의 협연으로 듣는다.

후반부는 이반 데스포츠의 '이탈리안 모음곡', 이안 클라크의 '마야, 도플러의 '헝가리 듀오 판타지', 사라사테의 '썬고이네르바이젠'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현경 단장이 총연출하고 조민희·이윤지·민들레·최선욱·오희원·최효석·송태훈이 출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39-452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오늘 워크숍

정영애(사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이 27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 워크숍 강단에 선다.

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단 8층 강의실에서 10차 성평등 정책 현안워크숍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 위원인 정 부총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정 부총장은 이날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현주소와 시행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창동유적과 시민고고학' 강연회

28일 신창동주민센터



김광란 시의원, 조현종 박사

광주신창동유적(국가사적 375호)은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된 대규모 도자농경 유적이다. 우리나라 최초 저습지로 당시 생활문화와 농경문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사 유적이다. 그러나 이 유적은 장기간 조사와 연구 집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시관과 현장체험을 비롯한 시민을 위한 시설이 전무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유적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신창동유적에 대한 시민고고학 차원의 학술 강연회가 열린다. 광주고고학연구원(이사장 조현종 박사)은 28일 오후 2시 신창동주민센터에서 '신창동유적과 시민

고고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특별 강사는 신창동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한 조현종 박사(전 국립광주박물관 관장)가 나서 '2000년 전 아시아 최고의 첨단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날 강연에서 조 박사는 생산과 생활, 매장유적이 망라된 다양한 생활유물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강연한다.

2부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김광란 시의원(광산4)이 사회를 맡아 '신창동유적과 시민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062-960-777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지' 박경리 손글씨 디지털 서체 무료 배포

'대하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1926~2008) 작가의 손글씨를 본떠 만든 디지털 서체(폰트·사진)가 무료로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KCC박경리체'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 공유타당(gongu.copyright.or.kr) 무료폰트 코너를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KCC박경리체는 국민손글씨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토지문화재단을 통해 손

1897년의 한자. 하키들이 몰려다

노우키, 노우키 아령인사를 하기도 한이

글씨를 기증받아 제작했다. 지난해는 소설 '남한산성', '갈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의 손글씨로 만든 'KCC김훈체'를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